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호남은 호남 국회의원들이 마땅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썩 마땅치 않게 여기는 호남인들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마땅해 하십니까? 호남 의원들은 낮은 지지율의 이유로 지도부를 타박하지만 호남인들의 마음속 이유는 훨씬 더 복잡다단할 것이다. 호남조차 호남 국회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이다.

호남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온통 공천에 있음을 모르는 호남인들은 없다. 호남인들의 정치 감각이 호남 국회의원들의 정치 감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호남국회의원들뿐일지도 모른다. 차별과 박해, 실패와 성공, 좌절과 희망의 근현대사를 버티어 온 호남의 자존심을 속속들이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신이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둘째, 자신이 계속 국회의원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현역 호남 국회의원을 중에서 흔쾌히 더 연임하기를 바라게끔 되는 의원들은 다섯 손가락에도 못 미친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호남인들은 다섯 손가락 이상을 꼽으시게 될까? 의문이다.

현역 의원의 자격을 변별하는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그 의원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정책 어젠다’가 있는가? 그 의원이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정책 이슈가 분명한가, 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책 소신이 분명한가 하는 기준이다. 그 정책이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 대중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인가, 시대의 고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기준도 있다.

둘째, 그 의원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활동이 있는가? 지역 집회에 얼굴을 비치거나 시장통에서 인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그런 지역 활동은 제외하고서 생각해 보라. 국민의 현장을 찾아가던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활동을 했던가? 폭발 직전의 국민 분노를 대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던가? 이런 활동이 떠오르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 자체가 없다.

셋째, 그 의원 이름을 들으면 희망이 떠오르는 인물인가? 희망이란 언제나 미래적이다. 희망이 떠오르지 않는 인물은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인물이다. 미래가 떠오르지 않는 인물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으며 더욱이나 국회의원인 될 자격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모든 정치인은 공히 과거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변해야 한다.

사실은 더욱 간단한 변별법이 있다. 첫째, 종편 나부랭이 인터뷰에만 나서는 현역 의원들은 버려라. 야권 분열에 이끌리 난 여권 세력의 공작에 스스로 나서서 높아나는 의원들이니 말이다. 둘째, 오직 당내 패권 싸움할 때만 나타나는 현역은 제거라. 그런 의원들은 오직 공천에만 목매는 사람들이기 심상이니 말이다. 셋째, 말은 당직만 강조하는 현역은 의문을 갖는 게 옳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 자격도 모자라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완장을 차려는 사람들이기 심상이니 말이다.

물론 이런 기준들은 호남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적

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다. 다만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적용되는 뒷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더 강조할 뿐이다. 그런 뒷발 지역구들이 전체 지역구의 절반이 넘는 우리의 선거판 현실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옥죄고 있음이 원통할 뿐이다.

뒷발의 국회의원들일수록 더욱 개혁적이어야 한다. 더욱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아야 한다. 더욱 정책 어젠다가 확실해야 한다. 더욱 정책 지향적이어야 한다. 더욱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더욱 발로 뛰어야 한다. 더욱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한다. 더욱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더욱 정치의 희망을 일으켜야 한다.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은 그렇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대들은 호남인들의 정치적 자존심을 대표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대들은 호남인들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남 사람들이여, 부디 정치 희망의 불길을 일으켜 나요!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종교칼럼



김법성 광주원음방송 사장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꼬마는 새를 날려 보내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던단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그 새의 운명이 스님의 말 한마디에 훨훨 날아가게 됐으니 한 생명을 살린 지혜 입에는 틀림없을 것임이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화두를 놓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운 분이 되었고 소태산 대종사님도 진리를 깨닫아 종교적 영성으로 우리들의 참 스승이 됐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이치를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이신 대산종사께서는 “부처님께에서 49년 동안 설하신 팔만대장경은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가르치신

것이요, 대종사께서 28년간 가르쳐 주신 교법의 핵심은 용심법(用心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마음을 알아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깨닫장을 하거위 해 보는 거울과 같이 생겼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거울에는 반사면이 있고 그 옆에 유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근본마음)은 우리의 반사면과 같이 투명해 모두를 다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리 표면은 관리를 안 하면 손때가 문듯이 배우고 익히는 바에 따라 형형색색의 상들이 맺히어 대상의 반을 따라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곳입니다. 수행을 하고 마음공부를 하지는 것은 이 우리의 표면에 붙어있는 상들을 깨끗이 닦아 내는 일입니다.

맑은 거울은 온 천지를 그대로 비추듯 마음을 깨달은 분들은 상없는 마음으로(성품 그대로) 사용하므로 바라밧을 행할

수 있지만 마음에 상들이 많은 사람은 그 상에 매여 있어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했다 상에 집착하고 선을 실행해도 착함에 물들어 후일 은근히 바람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에 맺혀 있는 마음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당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미온 마음, 고온 마음을 내려 놓을 때 부처로 살아갈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출근을 하면 모니터 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면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분별심과 주착(住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고, 무명으로부터 일어나는 번뇌와 성냄을 제거하여 언제나 슬기로운 판단을 하게하며, 대하는 인연마다 은혜로움으로 마음 쫓아 피게 하시고, 덕화의 열매로 내일을 준비 하게 하소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마음을 점점하고 또 점점하는 훈련을 통해 마음의 욕심을 내려 놓습니다. 마른 날 비포장도로에 자동차 지나가면 일어나는 뿌연 먼지의 마음을 가을 하는 청명함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기고



권성옥 승원대 대외협력처장·사회복지학과 교수

계륵(鷄肋)이 되어가는 사회복지

의 경제적 여건과 환경, 이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긴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는 국가일수록 복지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는 다양한 제도과 정책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방법에 따라 정치인들 역시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구분없이 으레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경쟁적으로 관련 입법들과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바야흐로 복지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복지를 늘린다 하여도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으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와 관련하여 소모되는 예산들은 모두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돈이 나올 수 있는 주머니가 줄어들수록 각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에 소모되는 예산을 국가가 더 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까지 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그리스를 본다면, 과도한 복지예산의 책정과 방만한 집행으로 그리스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와 관련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경제적 침체가 발생했을 때의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게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 이 점이 정부의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딜레마이다. 복지에 있어 한번 혜택을 본 국민들에게서 그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없는 것이 되고, 국민 대다수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는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이기에 함부로 버릴 수도 그렇다고 안고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복지가 계속으로 변해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송파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긴급하게 개정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가 확대되고 관련 비용이 증대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편성되어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향과 상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 증가하여 편성했는데 이는 2014년 17.6%가 늘어난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무줄 예산 편성은 오히려 복지가 후퇴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없는 모습이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모습이 근시안적이고 미래 중장기적 계획은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현실과 복지의 괴리감이 더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복지의 계류화’라는 이슈까지 등장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복지에 대한 기본사상과 가치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다르지만 최근에 이르러 결국은 복지의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고, 복지는 당연히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복지가 정부에게 있어 계륵이 아니며,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성숙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중아시아 문화유산 문화전당 콘텐츠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중아시아의 신화·설화, 기록유산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창작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들 자원은 영화·만화·애니메이션·공연예술 등의 창작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전당의 콘텐츠 제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중앙아시아는 원형문화의 보고로서 영웅신화와 설화의 원형이 풍부해 ‘문화 광맥’으로 통한다.

김종덕 문화부장관은 25일 문화전당에서 제2회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열고 문화 교류를 약속하는 ‘한·중앙아시아 장관회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이 참석했다.

합의문은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 ▲문화예술 전문가 잠재력 강화 ▲상호 문화 이해의 증진 ▲공동 창작·제작 활성화 ▲문화장관회의 정례화 등 크게 5개 부문 13개 조항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들 국가는 협력 강화를 통한 중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기록유

산의 복원,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등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성과는 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발전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문화전당이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시설과 구분되는 차별성은 다름 아닌 창·제작 센터다. 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설화·신화 등을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콘텐츠로 ‘상품화’ 하는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문화장관회의의 성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관건이다. 이들 국가의 원형을 발굴하고 ‘원소스’를 문화전당의 창작 재료로 활용하려면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5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7대 문화권 사업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지난 25일 공식개관한 문화전당이 광주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여기에 문화도시의 품격에 맞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전제돼야 함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광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 아니다

광주에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연루된 마약사범이 적발돼 비상이 걸렸다.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했다면 마약은 생각보다 쉽게 퍼져 있을 수 있다. 광주 지역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최근 광주서부경찰은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 판매책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상습 투약한 광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폭력조직원들은 충청지역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5g(시가 3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 두목 등이 매입한 필로폰 5g은 150명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조직 구성원이 2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고 마약을 팔아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마약류 사건이 흔치 않아 경각심이 덜했다. 그러나 근래 가정주부도 포함된 마약 사건 등이 심심치 않게 터져 더 이상 방심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로 유흥업소 주변 이권으로 조직을 유지해 왔던 폭력배들이 경기침체로 고사 위기에 몰리자 마약 판매에 손을 뻗은 것이다.

김·경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마약이 지역사회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약 제조와 공급, 구입 자금 마련 등 루트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마약의 유통은 단순 투약자나 판매책을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無等鼓

전 세계 어디 가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중 한 부류가 노숙자(노숙인)이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원 등지에서 생활한다. 노숙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노숙자에 대한 UN의 정의는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UN이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다. 여기에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

‘숙자 씨’를 위한 겨울나기 침낭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 51세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사업에 실패한 후 서울을 떠나 지인들의 눈을 피해 광주에서 7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최 씨였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90개의 오리털 침낭을 준비했는데 최 씨와 같은 처지인 31명이 침낭을 가슴에 품고 각지로 흩어졌다.

‘숙자 씨’의 침낭

김원도 화천의 화악산 일대는 남한에서 가장 추운 곳이다. 겨울철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침낭을 처음 알게 된 것

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침낭을 처음 알게 된 것

도 1988년 이곳에서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에 살고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들의 수가 급증했다. 그 이전에는 노숙자라는 말 대신 부랑이라는 비하적인 단어가 공식 용어였다. 요즘에는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숙자 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숙자를 줄인 말로 이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훨씬 친근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얼마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호남동성당에서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